

2008 6월 모의 - 3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자 료>

(가)

동네의 노인이며 젊은이들은 몇 번을 모여서 삶을 이 동리에서 내어 쫓기를 의논하였다. ㉠ 물론 대개가 합의는 되었다. 그러나 내어 쫓는 데 선착할 사람이 없었다.

㉡ “철지가 선착하면 뒤는 내 담당하마.”

㉢ “뒤는 걱정 말고 형님이 먼저 말해 보시오.”

제각기 삶에게 먼저 달겨들기를 피하였다.

이리하여 동리에는 합의는 되었으나 삶은 그냥 태연히 이 동네에 묵어 있게 되었다.

㉣ “며느년들이 조반이나 지었나?”

“손주놈들이 잠자리나 준비했나?”

마치 그 동네의 모두가 자기의 집안인 것같이 ‘삶’은 마음대로 이 집 저 집을 드나들었다.

××촌에서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반드시 조상 대신으로,

“삶이나 죽지 않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잊지 않은 하였다.

㉤ 누가 병이라도 나면,

“에익! 이놈의 병 삶한테로 가거라.”

고 하였다.

암중……. 누구나 삶을 동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 김동인, 「붉은 산」 활용 -

(나) 우리가 사랑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사랑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사랑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

(*는 비문 표시임.)

(다) ① 周國 大王이 鬮谷에 사르샤 / 우리 始祖 | 慶興에 사르샤 / 불근 새 그를 르러

- 『용비어천가』 (1447)-

② 두드러기가 불의에 도다 오르니

- 『인선왕후어필』 (1550년경)-

③ 아버와 아들이 親暱이 이시며 님금과 신해 義 | 이시며

- 『소학언해』 (1586)-

④ 기력이 아조 업서 누어 디내니 도동 춘 퇴가 들 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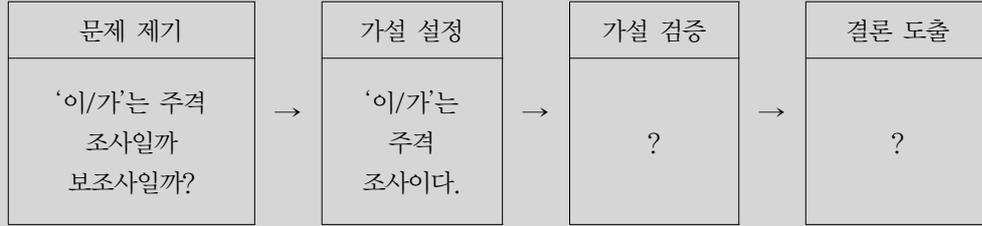
- 『병자일지』 (1636)-

⑤ 多分 ㅅ | 가 올 거시 / 안 싸다히 日本 ㅅ 다 니르니

- 『침해신어』 (1676)-

3-1. 다음 <조건>에 따라 (가), (나)를 활용하여 ‘이/가’의 공시적 특성을 논술하고, (가)~(다)를 활용하여 ‘이/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술하시오. [20점]

조건 I 1) 공식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탐구 수업 모형에 따라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2) 1)의 ‘결론 도출’에는, 가설 검증 결과가 가설에 합당하면 그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근거와 함께 간단히 제시할 것.
- 3)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나누어 서술 할 것.
- 4) 공식적 특성의 ‘가설 검증’은 15줄(±1줄), ‘결론 도출’은 5줄(±1줄), ‘역사적 변천 과정’은 12줄(±1줄)로 쓸 것.

→ **예 상 채 점 기 준**

1. 가설 검증과 결론 도출 (13점)

(1) 가설 검증(8점)

- 4점 - (가)의 ㉠-㉢에서 주격 조사가 맞으면 : 2점 / 주격 조사인 이유가 맞으면 : 2점
- 4점 - (나)의 예에서 둘째, 셋째 문장의 차이가 맞으면 : 2점
보조사와 격조사의 차이가 맞으면 : 2점

(2) 결론 도출 (4점)

- 1점 - 가설검증을 통해 가설설정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 1점
- 1점 - 위와 같이 (1)(2)로 나누어 제시했으면 : 1점
- 2점 - (1)(2)의 정리가 맞으면 : 각각 1점

(3) 분량이 맞으면 (1점)(가설 검증 15줄±1줄 : 14-16줄 / 결론도출 5줄 ±1줄 : 4-6줄)

2. ‘이/가’의 역사적 변천 (7점)

(1) 중세 국어(2점)

- 1점 - ‘이/ㅣ/∅’의 용법과 예를 맞게 제시했으면 : 1점
- 1점 - ‘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 1점

(2) 근대 국어(2점)

- 1점 - ‘이/ㅣ(∅)’와 함께 받침 없는 말에 ‘ㅣ(∅)’ 대신 ‘가’가 사용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 1점
- 1점 - 받침 없는 말에서 ‘빅가’와 ‘빅’로 혼용이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 1점

(3) 현대 국어(2점)

- 1점 - ‘ㅣ(∅)’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으면 : 1점
- 1점 - ‘이’와 ‘가’의 음운론적 조건과 그 예가 맞으면 : 1점

(4) 분량이 맞으면(1점)(12줄 ± 1줄 : 11-13줄)

예상답안

1. 가설 검증, 결론 도출

〈가설 검증〉

- (1) 먼저 (가)의 용례에서 ㉠은 명사 ‘대개’ 뒤에 ‘가’가 결합하여 그 성분이 주어가 되게 하고, ㉡은 명사 ‘침지’ 뒤에 ‘가’가 결합하여 그 성분이 주어가 되게 하고, ㉢은 명사 ‘형님’ 뒤에 ‘이’가 결합하여 그 성분이 주어가 되게 하고, ㉣은 명사 ‘며늘년들’ 뒤에 ‘이’가 결합하여 그 성분이 주어가 되게 하고, ㉤은 대명사 ‘누’ 뒤에 ‘가’가 결합하여 그 성분이 주어가 되게 한다. 이와 같이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의 체언 뒤에 ‘이/가’가 결합하여 그 성분이 모두 문장에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에 사용된 ‘이/가’는 모두 주격 조사이다.
- (2) (나)의 용례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사랑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에서 ‘사랑을’의 목적격 조사 ‘을’ 대신에 두 번째 문장과 같이 격조사 ‘이’가 사용되면 비문이 되지만, 세 번째 문장과 같이 보조사 ‘도’가 목적격 조사 ‘을’을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사용되면 비문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면 보조사이지만, 다른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대신 사용될 수 없다면 격조사이므로 ‘이/가’는 당연히 격조사로 보아야 한다.

〈결론 도출〉

위의 가설 검증을 통해 ‘이/가’가 주격 조사라는 ‘가설 설정’이 타당하다.

- (1) (가)의 예에서 체언 뒤에 ‘이/가’가 결합하여 그 성분이 모두 문장에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에 사용된 ‘이/가’는 모두 주격 조사이다.
- (2) (나)의 예에서 ‘이/가’는 다른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격 조사이다.

2. ‘이/가’의 역사적 변천

중세 국어자료는 (다)의 ㉠-㉢이며, 주격 조사는 ‘이’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大王이, 아들이, 親喜이’처럼 받침이 있는 경우 ‘이’가, ‘始祖ㅣ, 義ㅣ’처럼 ㅣ모음을 제외한 모음에 ‘ㅣ’가, ‘새와 같이 ㅣ모음일 때에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두드러기가’와 같은 ‘가’의 예는 중세 국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자료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근대 국어 자료는 (다)의 ㉣-㉤이며, 주격 조사는 ‘그력이, 빅’처럼 처음에 ‘이, ㅣ(∅)’가 사용되다가 받침이 없는 경우에 ‘ㅣ(∅)’ 대신 ‘되가’처럼 ‘가’로 대체된다. 그래서 ‘이’와 ‘가’의 체계를 갖추어가지지만, ‘ㅣ(∅)’와 ‘가’는 사용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서 ‘빅가’와 ‘빅’처럼 혼용을 보이기도 한다.

현대 국어 자료는 (가), (나)인데, 주격 조사는 ‘ㅣ(∅)’가 완전히 사라지고, 앞에 오는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만 결정되는데, ‘며늘년들이’처럼 받침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누가’, ‘우리가’처럼 받침이 없는 경우 ‘가’를 사용한다.

2008 6월 모의 - 3

3-2. <보기>는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다. ㉠, ㉡에 적절한 교사의 답변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보 기>

<대화 1>

교사 : ‘은/는’은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지요.

학생 : 그런데, 선생님, ‘굴은 노랗다.’에서 ‘굴은’이 주어니까, 당연히 ‘은’은 주격 조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 : 음, 그건 말이야. ㉠ _____

<대화 2>

학생 : 선생님, “이것 누가 먹었니?”라고 물으면, “철수가 먹었어.”라는 대답은 괜찮은데 “철수는 먹었어.”는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 그렇지요?

교사 : 참 좋은 질문인데……. 그건 말이야. ㉡ _____

예상 채점 기준

(1) ㉠의 내용(5점)

5점 - 보조사 특징이 있으면 2점 / ‘이’를 탈락시키고 ‘은’이 왔다는 내용이 있으면 : 2점 / 정리 내용이 있으면 : 1점

(2) ㉡의 내용(4점)

2점 - 청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 2점
2점 - 문장을 분석하여 청자가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설명이 있으면 : 2점

(3) 분량이 맞으면(1점) (12줄 ± 1줄 : 11줄-13줄)

예상답안

㉠ ‘은/는’과 같은 보조사는 다양한 격조사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대신 사용될 수 있지만, 보조사가 문장 성분을 표시하지는 못해, ‘굴은 노랗다’는 이 문장은 원래 ‘굴이 노랗다’라는 문장에서 주격 조사 ‘이’를 탈락시키고 보조사 ‘은’을 사용한 거야. 여기서 ‘굴은’을 주어로 보는 것은 보조사 ‘은’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와서 주격조사 대신 쓰였기 때문에 주어인 것이지, ‘은’이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것은 아니야.

㉡ 격조사인 ‘가’와 달리 보조사인 ‘은/는’은 청자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청자가 모르는 새 정보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이것 누가 먹었니?’라는 질문에서 질문자는 누가 먹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 상황에서 답변자가 ‘철수는 먹었어.’라고 하면 이 때 청자인 질문자는 철수가 먹었다는 정보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어색한 문장이 돼.

2009 - 3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자 료>

- (가) ① 영희가 꽃을 꺾었다.
꽃이 영희에게 꺾였다.
- ② 농부 두 명이 뱀 한 마리를 밟았다.
뱀 한 마리가 농부 두 명에게 밟혔다.
- ③ 오늘은 날씨가 풀렸다.
*오늘은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다. (*는 비문 표시임.)
- (나) ① 2000년부터 8년째 1위 자리를 지켜 온 김 선수가 신예 박 선수에게 정상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 일보)
- ② ○○의 식량난은 지난해의 대규모 흉수,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국제 원조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방송)
- ③ 엄 마 : 이게 무슨 소리니?
철 수 : (뜨끔해 하며) 엄마, 창문이 깨졌어요.
- ④ 손 님 : (식당에서) 식탁이 안 닦였네요.
종업원 :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 (다) ① 파도가 뱃전에 (부딪다 / 부딪히다).
- ② 다음 역에 도착하여 1분간 (정차되겠습니다 / 정차하겠습니다).
- (라) ① 그는 뜻밖의 광경이 믿겨지지 않아 옆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 ②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사신 그분 앞에 서니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 ③ 거대한 탑 앞의 비석에는 탑의 조성 경위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었다.
- ④ 고급 외식 산업과 이들 업체의 서비스에 길들여진 고객의 취향을 맞추기가 어렵다.

3-1. (가)의 ①~③을 모두 활용하여 피동 표현의 의미 특성을 설명하고, (나)의 ①~④ 각각은 화자의 어떤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서술한 후, (다)의 ①, ②에서 괄호 안의 표현 중 옳은 것을 고르고 각각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다)의 ①, ②의 괄호 안의 표현은 둘 다 옳을 수 있음. (25±3줄) [16점]



→ **예 상 채 점 기 준**

- (가) 6점 - ①, ②, ③의 내용이 각각 맞으면 : 각각 2점
- (나) 8점 - ①, ②, ③, ④의 내용이 각각 맞으면 : 각각 2점
- (다) 2점 - ①, ②의 설명이 맞으면 : 각각 1점

예 상 답 안

(가)

- ①에서 위의 예인 능동 표현은 주어인 영희가 제 힘으로 꺾는 의미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아래의 예인 피동 표현은 주어인 꽃이 영희의 행동에 의해 꺾이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한다.
- ②에서 능동 표현인 위의 예는 농부 2명이 뺨 한 마리(같은 뺨)를 밟은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농부 2명이 각각 다른 뺨 한 마리씩을 밟은 의미도 지니서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피동 표현인 아래 문장의 예는 농부 2명이 뺨 한 마리(같은 뺨)를 밟은 의미만을 지니게 되어 능동 표현과 차이가 있다.
- ③에서 위의 '날씨가 풀리다'는 탈행동적 피동의 예이다. 이것은 아래의 예와 같이 능동문을 상정하게 되면, 날씨를 풀게 한 '누군가가'와 같은 구체적 동작주를 상정하거나 의식하기 어려운데, 피동문에는 이와 같이 탈행동적 피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나)

- ① 박 선수가 1위를 빼앗은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면 능동문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김 선수를 주어로 하여 그 동안 1위를 지켜오던 김 선수가 그것을 빼앗긴 것에 화자의 안타까움(화자의 기대에 대한 실망)을 강조하기 위해 피동문으로 표현했다.
- ② 화자가 '○○의 식량난'의 원인을 몇 가지로 파악했지만, 그 원인의 해석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 근거가 불명확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피동문을 사용했다.
- ③ 상황을 보았을 때 화자인 철수가 창문을 깨 것이 맞지만, 철수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동문을 사용했다.
- ④ '식탁을 안 닦았네요'라고 능동문으로 표현하면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강한 질책이 되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고 약한 질책을 위해 피동문으로 표현했다.

(다)

- ①에서 파도는 스스로의 의지나 동작에 의해 뱃전에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동 표현인 '부딪히다'가 적절하고, ②에서 차가 정차하는 것은 동작주인 운전사의 동작이나 행동에 의한 것이므로 '정차하겠습니다'가 맞다.



→ **예상 채점 기준**

이중 피동이 아닌 것 (4점)

4점 - 이중 피동이 아닌 것 (2), (4)와 그 근거가 각각 맞으면 : 각각 2점

주장의 근거(10점)

• A에 대한 지도 내용이 맞으면 :

2점 - ㉠의 내용이 있으면 / 2점 - ㉡의 내용이 있으면(설문 자료 포함) / 1점 - ㉢의 내용이 있으면:

• B에 대한 지도 내용이 맞으면 :

2점 - ㉠의 내용이 있으면(설문 자료 포함) / 1점 - ㉡의 내용이 있으면 / 2점 - ㉢의 내용이 있으면:

예상 답 안

(라)에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와 (4)이다. (2)는 ‘숙다’라는 동사 뒤에 피동접사가 아닌 사동접사 ‘-이-’가 결합하여 사동사가 된 후, 여기에 피동의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4)도 역시 ‘길들다’라는 동사에 사동접사 ‘-이-’가 결합하여 사동사가 된 후, 여기에 피동의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A에 대해

㉠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바른 국어생활의 관점에서 이중 피동을 사용해서 안된다는 A의 주장이 정당하고 타당한 것임을 먼저 강조한다. (그 근거로 <보기 2>의 설문 (2)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 <보기 2>의 설문 (1)을 근거로 하여 언중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규범이나 문법과 달리 관습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로 들어준다. 이것은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므로 ㉢ ‘잊히다’와 함께 바른 형태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것임을 지도한다.

B에 대해

㉠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바른 국어 생활의 관점에서 또 <보기 2>의 설문(2)를 바탕으로 하여 이중피동이 자연스럽다는 B의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강조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는 ㉡ B의 주장은 우리 문법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언중들이 그릇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법에서 타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나서 ㉢ B의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용될 수 있으며(그 근거로 <보기 2>의 설문 (1)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 예도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2010 - 3

다음 <자료>를 읽고 논술하시오. [30점]

<자 료>

(가)

- ① 장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
전투가 끝나고 난 후 곳곳에서 주검이 발견되었다.
- ② 그녀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머칠째 목걸리가 낫지 않아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나)

- ① 나는 책값을 지불하고 서점에서 나왔다.
요즘은 공책 값이 예전보다 훨씬 비싸다.
- ② 그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다.
바람에 촛불이 하나씩 꺼져 간다.

(다)

- ① 갈비촌 : 갈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
반짝세일 : 짧은 시간 동안만 물건을 싸게 파는 일.
- ② 무추 : 뿌리는 무이고 잎은 배추인 신품종.
컴시인 : 컴퓨터의 원시인.
- ③ 명퇴 : 명예퇴직.
아나바다 :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자.

(라)

- ① 부교 → 뜬다리, 해로 → 바닷길, 코너킥 → 구석차기
- ② 에어컨 → 찬바람틀, 컴퓨터 → 슬기틀, 홈런 → 담넘이

(마) 단어 형성법 교육은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을 통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어휘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단어 형성법 교육은 국어의 단어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휘를 분석하는 활동과 창의적으로 새말을 만들거나 기존의 단어를 적절한 순화어로 바꿀 줄 아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스스로 언어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과제 :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를 만들어 보자.】

- 학생 A : 뭐가 좋을까, 아, ‘짚신구함’이 좋겠다.
 학생 B : “짚신도 제 짝이 있다.”에서 만들었구나. 그럴 듯한데. 하지만 ‘-이’는 ‘~를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지 않아. 이럴 때는 ‘-기’를 쓰는 것이 좋지.
 학생 A : 그럼, ‘짚신구하기’로 할까?
 학생 B : 좀 길다고 생각돼. 차라리 ‘짚신질’은 어떨까?
 학생 A : ‘싸움질’, ‘부채질’ 같은 단어를 분석해 봐도 그렇고, 뭔가 좀 나쁜 뜻 같아. 한자어인 ‘질’이 들어가서 그런가? 한자어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지.
 학생 C : 나도 ‘질’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것 같아. ‘짚신’이란 말도 금방 와 닿지 않아.
 학생 A : ‘짜궁모집’은 어때. 그걸로 할까?
 학생 B : ‘모집’은 한자어니까 고유어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모집’이라면 여러 명을 모으는 뜻이 되어 맞지 않아. ‘짜궁구하기’로 하자.
 학생 C : 좀 길기는 하지만 그게 적당하겠다.
 학생 B : 음……. 그래, 일단 그걸로 하자.
 학생 A : 좋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학생 C : 나도 그래, 다음에 또 해 보자.

3-1. (가), (나)의 밑줄 친 단어 쌍들이 지니는 한글 맞춤법상의 차이와 사전(辭典) 등재상의 차이를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신조어인 (다)와 순화어인 (라)가 만들어진 방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5±3행) [18점]

- 조건 | 1) (가)를 분석할 때, 한글 맞춤법상의 차이는 분철 및 연결 여부를 고려하고, 사전 등재상의 차이는 어떤 것이 표제어가 되는지를 고려할 것.
 2) (나)를 분석할 때, 한글 맞춤법상의 차이는 띄어쓰기를 고려하고, 사전 등재상의 차이는 어떤 것이 표제어가 되는지를 고려할 것.
 3) (다)의 ①, ②, ③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할 것.
 4) (라)의 ①, ②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분석할 것.

예 상 답 안

명사화 접미사 ‘-음/-ㅁ’이나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단어의 경우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①의 ‘죽음’은 ‘죽-’+‘-음’으로 분석할 수 있고, 생산성이 많은 접미사 ‘-음’이 결합된 파생명사이므로 끊어적기를 하였다. 그런데 ‘주검’은 ‘죽-’+‘-엄’으로 분석할 수 있고, 생산성이 없는 접미사 ‘-엄’이 결합된 파생명사이므로 이어적기를 했다. (가)의 ‘죽음’과 ‘주검’은 모두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다. (가) ②의 ‘목걸이’는 ‘목걸-’+‘-이’로 분석되는데, 생산성이 많은 접미사 ‘-이’가 결합된 합성어의 파생으로 파생어이며 끊어적기를 했다. ‘목거리’는 ‘목+’+‘거리(걸+이)’로 분석되는데, ‘거리’는 생산성이 많은 접미사 ‘-이’가 결합되었으나, 그 뜻이 ‘목이 부어 아픈 병’으로 어간의 원뜻과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가)의 ‘목걸이’와 ‘목거리’는 사전에 모두 표제어로 등재된다.

(나)의 ① ‘책을 파는 값/책을 사는 데 드는 돈’을 뜻하는 ‘책값’은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이므로 붙여 쓰기를 하며 표제어로 사전에 실려 있다. 그런데 ‘공책 값’의 경우 두 단어가 하나의 구(명사구)를 이루는 것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나)의 ② ‘나아가다’는 ‘나+아+가+다’로 분석할 수 있고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이므로 붙여쓰고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꺼져 가다’는 ‘꺼지+어+가+다’로 분석할 수 있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두 단어이다. 한글 맞춤법 47항에서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하고 있으나,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의 신조어가 만들어진 방식은 ‘합성’이다. 합성 속에서 ①은 확장(합성)으로 기존의 의미 외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여 새말을 만든 것이고, ②는 혼성으로 여러 단어의 일부만을 결합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다. ③은 축약으로 혼성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단어를 이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기존 단어의 중요 어휘부만을 모아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의 순화어의 경우 ①은 외국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한 것이고, ②는 외국어를 우리 말 뜻에 맞게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다)와 (라)는 우리말을 새롭게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고, (라)는 기존의 것을 순화해서 우리말로 바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0 - 3

3-2. (마)를 참고하여 아래의 ㉠~㉣에 적절한 문장을 넣어 '평가 요소표'를 완성한 후, (바)의 '학생 A'를 평가 요소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근거를 (바)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0±2행) [12점]

(1) 평가 요소표

평가 목표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단어 형성법에 대한 지식, 단어의 분석 및 생성 능력, 이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다.	지식	• 국어의 단어 형성법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
		• (㉣)
태도	• (㉡)	

(2) '학생 A'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근거

예상답안

(1) 평가 요소표

평가 목표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단어 형성법에 대한 지식, 단어의 분석 및 생성 능력, 이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다.	지식	• 국어의 단어 형성법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 국어의 어휘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다.
		• ㉣ 국어의 새말을 만들거나 기존의 어휘를 순화할 수 있다.
태도	• ㉡ 국어의 단어 형성법을 통해 우리말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학생 A'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근거

㉠ A의 세 번째 발언을 통해 볼 때 '부채질'의 경우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싸움질은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또, 접미사 '-질'을 한자어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므로 ㉠ 영역은 '나쁨'으로 볼 수 있다.

㉣ 어휘를 분석하고, 새말 또는 순화어를 만들어 내는 기능에서 '깊신 구함이', '깊신 구하기', '짜꿍 모 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말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보통' 정도로 볼 수 있다.

㉡ '깊신구함이', '짜꿍모집' 등의 새말을 만들어 내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태도는 '좋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1 - 3

옛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 생활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수업 내용을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 (가) 내 이를 爲嵬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늬 字꼳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썩매 便便安한키 호고져 흙 쓰르미니라
 - 『훈민정음언해』 -
- (나) 불휘 기픈 남근 브락매 아니 뭇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그마래 아니 그츨씩 내히 이러 바락래 가느니
 - 『용비어천가』 -
- (다) 空中에 머물어늘 天龍八部ㅣ 讚嘆호스르니
 長生인 不肖홀씩 늬이 나아간들 百姓들히 늬을 다 조츠니
 - 『월인석보』 -
- (라) 申國夫人이 性이 嚴호고 法度ㅣ 이서 비록 심히 공을 스랑호나
 큰 치위와 덩고 비 올 제라두 뵈셔 셋기를 날이 못도록 호야
 - 『소학언해』 -
- (마) 너는 高麗人사름이어니 쯤 엇디 漢語 니름을 잘 호느뇨
 내 漢人사름의 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漢人말을 아노라
 네 뉘손디 글 비혼다
 내 漢 호당의셔 글 비호라
 네 므슴 글을 비혼다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중략)……
 므슴 글을 강호느뇨
 小學 論語 孟子를 강호노라
 - 『노걸대언해』 -

(바) 【과제 : 옛 문헌을 바탕으로 국어 생활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자.】
 학생 ‘갑’ : 현대의 맞춤법 규정을 지키면 휴대 전화로 문자로 보낼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해요. 보세요. ‘그거 감만 싸면 사고 시퍼.’, 이렇게 쓰면 문자 보낼 때 더 간편하고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옛날에도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 ‘을’ : 맞아요. 현대로 올수록 맞춤법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에 그런 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학생 ‘병’ : 그런데 옛글의 맞춤법도 우리에게 낯설지만 옛말의 문법도 특이한 점이 있네요. (마)에서 물음을 끝맺는 문법 형태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두 문법 형태 중 하나의 사용 조건이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닐까요?

<보 기>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건 |**
- (1) (가)~(라)에서 <보기>의 ㉠에 해당하는 어절 4개를 찾고, 이들이 ㉠에 부합하는 이유를 각각 기술할 것
 - (2) <보기>를 활용하여 (바) 학생 ‘갑’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서술할 것.
 - (3) (바) 학생 ‘병’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교사의 지도 내용을 서술할 것. 단, (마)를 활용하여 문법 형태의 변화된 사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할 것.

예상답안

(가)~(라)에서 ‘㉠ 어법에 맞도록’에 해당하는 어절은 (가)는 ‘스물여덟’, (나)는 ‘꽃’, (다)는 ‘늪이, 늪을’, (라)는 ‘날이’ 등이다. (가)는 겹받침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음운을 어법에 따라 제시했고, (나)는 끝소리에 ‘ㄷ’으로 소리가 나지 않지만, 원형을 밝혀 제시했다. 그리고 (다)와 (라)는 모두 받침 있는 체언과 뒤에 모음 조사가 이어질 때, 그 원형을 밝혀 제시했다. 이것을 어법에 맞도록 하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으면 (가)는 ‘스물여덜’, (나)는 ‘꽃’, (다)는 ‘늬미, 늬물’, (라)는 ‘나리’ 등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이들은 표의적 표기로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이어적기나 8중성법, 7중성법 등의 표음적 표기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쓰기에는 편했으나 적혀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데는 불편했다. (바)에서 학생 갑은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간편하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예를 들어 제시한 예문에서 ‘갑만’은 표의적 표기에 의하면 ‘값만’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만 ‘갑만’으로 표기되면 ‘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값만’, ‘싫어’ 등으로 어법에 맞게 적으면 그 뜻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석의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종결 어미에서 ‘아’형 계열은 판정 의문문, ‘오’형 계열은 설명 의문문이 사용되었는데, 판정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없고, 설명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경우 2인칭 의문문은 종결 어미가 ‘-나다, -라다’ 처럼 특이한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마)자료는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마)의 의문문은 모두 2인칭에 사용된 의문문인데 중세 국어처럼 “네 …… 빙흔다”에서 ‘-나다’ 계열의 의문형 어미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엇디 …… 흐느뇨, 므슴 …… 강흐느뇨’에서 2인칭인데도 ‘오’형 계열의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다. 즉 2인칭을 표시하던 ‘-나다, -라다’가 점차 ‘오’형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것은 현대국어로 오면서 다시 한번 변화를 겪는데, 현대 국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모두 ‘아’형으로 통합되며, 그래서 ‘오’형의 경우도 ‘아’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종결 어미에 의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구분하던 예도 사라지고, 의문사 유무에 의해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을 구분하게 되었다.

2008 6월 모의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가) 「온달전」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놀려 말했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 대장부의 아내가 될 수 없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보내야 하겠다.” 왕은 매양 그렇게 말하곤 했다. 딸의 나이가 16세가 되어 상부(上部) 고씨(高氏)에게로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를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예전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식언(食言)을 하지 않으려 하거늘 하물며 지극히 존귀하신 분께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오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네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 내 딸이 될 수 없다. 어찌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마땅히 너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중략)

공주가 그 집에서 나와 걸어서 산 밑에 이르니,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이 보였다. 공주가 그에게 마음속에 품은 바를 말하니, 온달이 불끈 화를 내며 말했다. “이는 어린 여자가 행동할 바가 아니다. 분명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말을 마친 온달은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공주는 혼자 온달의 집으로 돌아와 사립문 아래서 잤다. 이튿날 아침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들에게 상세히 말을 하니, 온달이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 자식은 지극히 누추하여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없고, 내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결코 귀인이 거처할 곳이 못됩니다.”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길, ‘한 말 곡식도 방아 쥘 수 있고, 한 자 배도 바느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즉 진실로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후에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내 공주가 금팔찌를 팔아 농토와 집, 노비, 우마와 기물 등을 사니 살림살이가 다 갖추어졌다. (후략)

(나) 「이생규장전」

이 서생은 일찍부터 책을 끼고 학교에 갈 때는 언제나 최 처녀의 집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집 북쪽 담 밖에는 수십 그루의 수양버들이 운치 있게 둘러쳐져 있었다. 이 서생은 어떤 날 그 나무 밑에서 쉬다가 문득 담 안을 엿보았더니 이름 있는 온갖 꽃들은 활짝 피어 있고 벌과 새들이 그 사이를 요란하게 날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그마한 누각이 꽃 숲 사이에 은은히 보이는데, 구슬로 만든 발은 반쯤 가려 있고 비단 휘장은 나지막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속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수를 놓고 있다가 손을 잠시 멈추고 아래턱을 괴더니 시를 읊는다. (시 1수 생략)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누구 집 도련님과,
푸른 깃 넓은 띠가 버들 새로 비쳐 오네.
이 몸이 화신하여 대청 안의 제비 되면,
죽림을 사뿐 걸어 담장 위를 넘어가리.

이 서생은 그녀가 읊은 시를 듣고는 자기의 재주를 급히 시험하고자 안달이 났다. 그러나 그 집의 담장은 높고 가파르며, 안채가 깊숙한 곳에 있었으므로 다만 서운한 마음으로 학교로 갔다. 그는 돌아올 때에 흰 종이 한 폭에다 시 3수를 써서 기와 쪽에 매달아 담 안으로 던져 보냈다. 최 처녀는 시비 향아를 시켜 주워 보니 이 서생이 보낸 시였다. (시 2수 생략)

예쁜 인연 되려는지 궂은 인연 되려는지,
부질없는 이내 시름 하루가 삼추 같네.
넘겨 보낸 시 한 수에 가약 이미 맺었나니,
남교(藍橋) 어느 날에 고운 님 만나질까.

최 처녀는 그 시를 읽고 또 읽은 후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자기도 종이쪽지에다 짙막한 글귀를 적어서 담장 밖으로 던져 주었다. “도련님은 의심치 마십시오. 황혼에 뵈기로 합시다.” 황혼이 되자 이 서생은 최 처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득 복숭아 꽃나무 한 가지가 담 밖으로 휘어져 넘어오면서 간들거리기 시작했다. 이 서생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넷줄에 매달린 대광주리가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다. 이 서생은 그 줄을 타고 담을 넘어갔다. 때마침 달이 동산에 돌아오고 그림자가 땅에 깔려 맑은 향기가 사랑스러웠다. 이 서생은 자기가 신선 세계에 들어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은근히 기뻐으나 몰래 숨어들고 보니 모발이 곤두섰다. 그가 좌우를 살펴보니 최 처녀는 벌써 꽃떨기 속에서 시녀 향아와 함께 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서생을 보자 방긋 웃으며, 시 두 구절을 먼저 읊었다.

도리(桃李) 나무 얽힌 가지 꽃송이 탐스럽고, / 원앙새 베개 위엔 달빛도 곱고나.

서생도 곧 뒤를 이어서 시를 읊었다.

이 다음 어찌다가 봄소식이 샌다면, /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

최 처녀는 곧 낮빛이 변하면서 말했다. “도련님 저는 애당초 도련님을 끝내 남편으로 모셔 오래도록 즐겁게 지내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조금도 걱정함이 없는데 대장부의 의기를 가지고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뒷날에 규중의 비밀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더라도 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녀는 향아를 시켜 방에 들어가서 술과 과일을 가져오게 했다. (후략)

(다) 「시집살이 노래」

시집가든 사흘 만에 호망자리 둘러메고 발메로야 가라 칸다
머슴들아 머슴들아 발메로야 가자시라
마당걸이 굳은 발을 미걸이도 지슴 발을 남산걸이 넓은 발을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삼시 골로 거듬 매고 점심때가 되었구나
머슴들아 머슴들아 점심 먹을 집에 가자
집이라고 돌아오니 시아버지 하는 말이
번개같이 뛰나오매 그게라상 일이라고 점심 찾아 벌써 오나
쪼바리 같은 시어마님 쪼불시가 기나오매
그게라상 일이라고 점심 찾아 벌써 오나
기가 차고 매가 차여 점심 쪼매 주이시소
삼년 묵은 보리밥을 식기 굵에 문체주고
장을 조끔 달라 하니 삼년 묵은 등계장을
종지 굵에 문체주고 몽당숟가락을 던져주니
밥그릇을 가주고야 장방 우에 얹어놓고
농문으로 열어치고 우리 아배 떠온 처매 우리 어매 눈공 처매
한 폭 따여 고깔 짓고 두 폭 따여 행전 짓고 시 폭 따여 바랑 짓고
오랑망태 둘러메고 시금시금 시어마님 나는 가네
시금시금 시어마님 시집살이 몬해가주



나는 가네 나는 가네 가그뎡 가고 말그뎡 말고
 (중략)
 동해사 절로 가서 한 대문을 열어치고 두 대문을 열어치니
 늙은 중강 젊은 중강 동미중강 앉었구나
 동미중아 벗이중아 이내 말쌈 들어보라 내 머리를 깎어도고
 정들어 나여두고 머리 깎다 외말이고 잔말 말고 깎어도고
 동미중아 머리 깎어 친정골에 사주 가자 이내 머리 깎어도고
 한 귀때기 깎고 나니 눈물이 진동하고
 두 귀때기 깎고 나니 팔월이라 원두발에 돌수박이 되었구나
 (후략)

2-1.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가)~(다)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그 성격을 각각 서술하시오. [10점]

- 조건 |**
- 1) 제시된 지문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
 - 2) 서사적 갈등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
 - 3)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700자(±100자)임.



예상 채점 기준

- (1) 3점 - (가)의 갈등의 양상과 성격이 2가지 모두 맞으면 : 3점 / 1가지 맞으면 : 1점
- (2) 3점 - (나)의 갈등의 양상과 성격이 2가지 맞으면 : 3점 / 1가지 맞으면 : 1점
- (3) 3점 - (다)의 개인과 사회의 갈등의 양상과 성격이 맞으면 : 3점
- (4) 1점 - 분량이 맞으면 : 1점(700자 ±100자 : 15-20줄)



예상 답안

(가)는 갈등의 양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및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드러난다. 어린 날의 약속을 지켜 친 민 온달에게 시집가기를 원하는 평강 공주와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려는 평강왕의 갈등이 '약속의 중요성'에 관한 개인들 간의 갈등이라면, 평강 공주가 당대 부권 중심의 도덕률을 비판하며 스스로 독자적 삶을 개척하려는 것은 '부권을 벗어나 주체적 삶을 개척하는 여성상'을 드러낸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나)는 갈등의 양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및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드러난다. 최 처녀를 좋아하면서도 소문이 두려워 사랑을 주저하는 이생과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사랑을 추구하려는 최 처녀는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드러내며, 한편으로 최 처녀가 당대의 봉건적인 윤리관에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봉건적 윤리관을 벗어난 사랑의 추구'라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생이 소문을 염려하며 사랑을 망설이는 부분은 개인 내면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다.)

(다)는 갈등의 양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및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나타난다. 갓 시집 온 며느리와 시집 식구들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인 것으로 '며느리와 시집 식구의 갈등'으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며, 며느리의 삶의 애환과 고난이 조선시대 봉건적인 가부장제로 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시집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이면적인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잘 드러난다. (다)에서는 이면적 갈등이 중요하므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만 파악할 수도 있다.

2008 6월 모의 - 2

2-2. 김 교사는 위의 세 작품을 제재로 삼아 아래와 같이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을 설계하였다. 이 내용 가운데 잘못 설계된 부분을 찾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10점]

교수·학습 목표	1) 고전문학 작품의 갈래적 특징과 주요 향유층을 이해한다. 2) 고전문학에 나타난 여성상의 특징과 작가 또는 향유층의 의식을 이해한다.				
교수·학습 내용	작품명	갈래 및 주요 향유층	여성상의 특징	작가 또는 향유층의 의식	출전
	「온달전」	㉠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설화로서, 주요 향유층은 상층 지배 계층이다.	㉡ 공주와 바보의 결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평강공주는 낭만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	㉢ 「온달전」에는 온달에 대한 평강공주의 사랑과 후원을 통해 백성에 대한 지배 계층의 자애로움을 알리려는 의식이 담겨 있다.	『삼국사기』(열전)
	「이생규장전」	㉣ 전기소설로서, 주요 작가층은 소외된 지식인이다.	㉤ 최 처녀는 조선 전기 양반가 처녀의 일반적인 모습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	㉥ 생육신이었던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에는 최 처녀를 사육신에 비유하여 사육신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절의 정신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금오신화』
「시집살이 노래」	㉦ 서사 민요로, 주요 향유층은 조선 후기 하층 부녀자 들이다.	㉧ 이 노래는 시집살이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부녀자가 여승이 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남성 중심적 가족 제도하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집을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부녀자들의 한과 원망이 담겨 있다.	『한국민요집』	

- 조건 |**
- 1) (가)~(다)의 작품 전체를 고려할 것.
 - 2) 작품의 성격과 특징 및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할 것.
 - 3)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700자(±100자)임.

→ 예상 채점 기준

- (1) (가)의 잘못 설계된 항목과 그 이유가 맞으면 : 3점
1점 - 항목이 맞으면 : 1점 / 1점 - 이유가 맞으면 : 1점 / 1점 - 작품의 성격·내용을 근거로 했으면 : 1점
- (2) (나)의 잘못 설계된 항목과 그 이유가 맞으면 : 3점
1점 - 항목이 맞으면 : 1점 / 1점 - 이유가 맞으면 : 1점 / 1점 - 작품의 성격·내용을 근거로 했으면 : 1점
- (3) (다)의 잘못 설계된 항목과 그 이유가 맞으면 : 3점
1점 - 항목이 맞으면 : 1점 / 1점 - 이유가 맞으면 : 1점 / 1점 - 작품의 성격·내용을 근거로 했으면 : 1점
- (4) 1점 - 분량이 맞게 제시되었으면: 1점(700자 ±100자 : 15-20줄)

예상답안

(가)의 「온달전」은 ㉠이 잘못 설계 되었다. 「온달전」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했다는 점은 ‘온달’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이야기를 상층 지배 계층이 향유했다는 것이 잘못된 내용이다. 「온달전」은 ‘온달’이란 실존 인물에 당시 전해지던 ‘숫 굽는 총각’, ‘말 기르기’ 등 다양한 설화 모티프가 결합한 민담이며, 민담은 전통적으로 우리 문학에서 민중들이 구전으로 전하면서 향유한 이야기이므로 향유층은 상층 지배계층이 아니다.

(나)의 「이생규장전」은 ㉡이 잘못 설계 되었다. 조선 전기 일반적인 규방처녀는 엄격한 가부장제 하에서 정절 및 일부중사라는 윤리를 강요받아, 규방으로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나)에서 ‘최처녀’는 이생의 관심을 끌기를 바라고, 밤에 이생을 자기 방에 찾아오게 하며, 또 소문이 날까 주저하는 이생에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조선 전기 양반가 처녀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다.

(다)의 「시집살이 노래」는 ㉢이 잘못 설계 되었다. 이 노래는 봉건적 가부장제 하에서 며느리가 어려운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여승이 되는 이야기이다. (다)에서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사흘째부터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도 먹을 것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시집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시집을 떠난다. 며느리가 시집살이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여승이 된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시댁 식구의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2009 - 2

고전 문학에 나타난 골계의 양상과 특성에 대하여 수업하고자 한다. (가)~(다)를 읽고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30±3줄) 【20점】

(가) 안악성* 안에 날 저무는데	安樂城中欲暮天
관서의 못난이들이 시 짓는다 우쭐대네.	關西孺子聳詩肩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해 밥 짓기를 미루고	村風厭客遲炊飯
주막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라 하네.	店俗慣人但索錢
텅 빈 뱃속에선 천둥소리가 자주 울리고	虛腹曳雷頻有響
푼릴 대로 푼린 창문으론 냉기만 스며드네.	破窓透冷更無穿
내일 아침엔 강산의 기운을 한 번 마시고	朝來一吸江山氣
나를 벽곡**하는 신선으로 아는가 물어보리라.	試問人間辟穀仙

- 김병연, <안악성에서 치른 곤욕(過安樂見忤)>

* 원래의 지명 '安岳'을 작가가 '安樂'으로 바꾸어 썼음.

** 벽곡(辟穀) : 곡식은 안 먹고 술잎, 대추, 밤 따위만 날로 조금씩 먹음. 또는 그런 삶.

(나)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긋치 알피오라

뒀은 님 오며는 쏘리를 뽕해 치며 치쨌락 나리쨌락 반겨서 내닫고 고은 님 오게 되면 뒷발을 바둥 바둥 뜨르락 나오락 강강 좃는 요 도리암키
 쉼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 줄이 이시랴.

(다) 여러 자식 놈들이 고기를 받들고서 낮으로 자를 적에 고기 곁을 알 수 있다. 가로 잘라 놓은 모양 서까래 머리 잘라 놓은 듯, 기둥 밑 잘라 놓은 듯, 건개와 양념들도 별로 수가 많지 않아 소금 흘고 맹물 쳐서 토정(土鼎)에 삶아 내고. 그릇 없어 밥 푸겠나, 찌도 않은 현 쇠죽통에 밥 두 통을 퍼다 놓고, 숟가락은 근본에 없고, 있더라도 찾겠는가. 적연 물기 안 한 손으로 질통 가에 늘어앉아 서로 주워 먹을 적에, 이 여러 자식들이 노상에 밥이 부족하여 서로 뺏어 먹었구나. 그리 많은 밥이로되 큰놈 입에 넣는 것을 작은놈이 뺏어 훔쳐 큰놈도 빼앗기고, 서로 집어 먹으면 싸움 아니 하련마는 약을 쓰며 주먹 쥐어 작은놈 볼때기를 이 빠지게 쪼으면서, 개 아들놈 쇠 아들놈 밥통이 엮어지고 살벌이 일어나되, 무지한 저 흥보는 밥 먹느라 윤기(倫紀) 잊어 자식 몇 놈 뒤했도 살릴 생각 아예 않고, 그 뜨거운 밥이로 되 두 손으로 서로 쥐어 죽방울 놀리는 양, 크나큰 밥덩이가 손에서 떨어지면 목구멍을 바로 넘어 턱도 별로 안 놀리고 어깨춤 눈 번득여 거의 한 말어치를 처치한 연후에, 왼편 팔 땅에 짚고 두 다리 쪽 뺨치고 오른편 손목으로 뱃가죽을 문지르며 밥더러 농담하기로 들어,

“여봐라 밥아, 내가 하도 시장기에 너를 조금 먹었으나. 네 소위를 생각하면 대면할 것 아니지야. 세상인심 간사하여 추세(趨勢)를 한다 한들 너같이 심히 하라. 세뎃집과 부잣집만 기어이 찾아가서 먹다 먹다 못다 먹어 개를 주며 돌을 주며, 학 두루미 때거위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 쉬네 썩네 하는 것을 나와 무슨 원수있어 사흘 나흘 예상 굶어 뺏가죽이 등에 붙고 갈빗대가 따로 나서,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먹먹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어질어질,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죽게 되었으되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말하니, 그럴 도리가 있단 말인가. 예라, 이 괴이한 것. 그런 법이 없느니라.”

아주 한참 엄하게 꾸짖더니, 도로 슬쩍 달래어,

“내가 그렇다고 노여워 안 오려느냐. 어여뻐서 한 말이지 미워 한 말이 아니로다. 친고(親故)는 이르고 늦음이 없어 정지후박(情之厚薄) 매였으니, 어찌 서로 이리 늦게 만났는가. 원권대 서로 떨어지지 말고 지내 보세. 애겨애겨 내 밥이야. 옥을 주고 바꿀쏘냐, 금을 주고 바꿀쏘냐. 애겨애겨 내 밥이야.”

밥이 더러더러 오도록 새 정을 붙이려고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 신재효본 <박흥보가(朴興甫歌)>

- 조건 |**
- 1) 골계의 개념을 설명하고, 문학적 발상과 주체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다)의 골계적 특성을 분석할 것.
 - 2) (다)를 제재로 하여 ‘<박흥보가>에 나타난 골계의 양상과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할 때 ‘목표 학습’ 단계에서 할 학습 활동 3가지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학습 효과를 각각 서술할 것.

→ **예 상 채 점 기 준**

<분석> 세트 문제이므로 1)에 담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2)의 문제도 쉽게 풀어갈 수 있음.

(가)에는 풍자와 기지가 나타나며, (나)는 해학, (다)는 풍자와 해학이 풍자가 함께 나타나는데, (가)를 풍자, (나)를 해학, (다)를 풍자와 해학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가)를 기지, (나)를 해학, (다)를 풍자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자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제시했다.

- (1) 1점 - 골계의 개념
 - 3점 - (가)의 발상, 주체의 태도, 골계의 성격이 각각 맞으면 : 각각 1점
 - 3점 - (나)의 발상, 주체의 태도, 골계의 성격이 각각 맞으면 : 각각 1점
 - 3점 - (다)의 발상, 주체의 태도, 골계의 성격이 각각 맞으면 : 각각 1점
- (2) 3점 - 학습활동 및 그 내용, 기대되는 효과가 맞으면 : 각각 1점
 - 3점 - 학습활동 및 그 내용, 기대되는 효과가 맞으면 : 각각 1점
 - 3점 - 학습활동 및 그 내용, 기대되는 효과가 맞으면 : 각각 1점
 - 1점 - 분량 1점

예상답안

(1)

‘골계’ - ‘말이 매끄럽고 익살스러워 웃음을 자아내는 일’ 또는 우스꽝스럽게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것 (있는 것에 의한 상반, / 가치를 추락시키고 희화화하는 것)

(가) 인락성에서 겪은 유학자들의 허위와 야박한 인심과 세태가 문학적 발상 - 주체는 그러한 문학적 발상인 대상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뚜렷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체가 그 대상을 비판적이고 공격하는 웃음이므로 풍자로 볼 수 있음.

(나)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미움을 개의 행동에 전가시켜 드러낸 것이 문학적 발상 - 주체는 그러한 문학적 발상인 개의 행동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호의로 대하며, 모순과 추악과 비속을 배격하려 하지 않고 주체가 대상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웃음이므로 해학임.

(다) 흥부 일가가 매우 굶주리다가 게걸스럽게 밥을 먹는 장면이 문학적 발상임. - 주체는 문학적 발상인 흥부 일가의 밥 먹는 장면보다 정신적 우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호의로 대하며, 그 추악과 비속을 배격하지 않고 주체가 대상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웃음이므로 해학임. / 서민의 궁핍한 삶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한 부의 분배 - 주체는 빈자와 부자가 불평등하며, 서민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현실보다 정신적, 도덕적 우위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뚜렷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체가 흥부의 입을 빌려 그 현실을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웃음이므로 풍자로 볼 수 있음.

(2) (다)

첫째, (다)를 통해 골계(풍자와 해학)의 기능 파악 - (다)에 나타난 골계를 통해 좌절과 실의의 상황에서 웃음을 통해 힘을 얻게 되며, 슬픈 상황이지만 감정의 정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 - 이를 통해 기대되는 학습 효과는 골계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를 통해 풍자와 해학의 차이점 파악. - (다)에서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공격적 웃음이고, 해학은 대상에 대한 동정적 웃음이며, 풍자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만, 해학은 주체와 대상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며, 풍자는 혼란한 시대 현실과 관련이 있지만, 해학은 시대 현실과 관련이 없다. - 이를 통해 기대되는 학습 효과는 풍자와 해학이 지닌 웃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다)를 통해 풍자와 해학이 함께 나타날 때의 효과 파악 - (다)에서 해학만 제시되면 단순한 재담이나 농담의 의미를 지니며, (다)에서 풍자만 나타나면 지나친 야유나 빈정거림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나타났다. - 이를 통해 기대되는 학습 효과는 풍자와 해학이 호혜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조화 있는 골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보충] (다)를 통해 골계의 특징(풍자와 해학이 이루어지는 원리) 파악 - (다)에 나타난 골계는 ‘웃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다)에 나타난 골계는 모두 주체가 대상보다 정신적·도덕적 우위에 있다. - 이를 통해 기대되는 학습효과는 골계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2010 - 2

(가)~(다)를 제재로 하여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30±3행) [20점]

(가)

東京明期月良	東京 불기 드라라
夜入伊遊行如可	밤 드리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드리샤 자릭 보곤
脚烏伊四是良羅	가로리 네히러라.
二盼隱吾下於叱古	두브른 내해엇고
二盼隱誰支不焉古	두브른 누기헨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딤 내해다마르논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아샤늘 엇디헨릿고.

- 처용가 (김완진 해독)

(나)

時時로 멀이 드리 北辰을 브라보며
 傷時 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는다
 吾東方 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논,
 國運이 不幸하야 海醜 兇謀에 萬古羞을 안고 이서
 百分에 헨 가지도 못 시셔 브러거든
 이 몸이 無狀흔들 臣子ㅣ 되야 이서다가
 窮達이 길이 달라 몬 퇴읍고 늘거신들
 憂國 丹心이야 어너 刻에 이즐넉고

- 박인로, 선상탄

(다) 그때 동청은 더욱 부지런하게 엄 승상을 섬기고 있었다. 금과 구슬 십만 냥을 냉진에게 주어 서울로 올라가 승상의 생일 헌수(獻壽)로 바치게 하였다.

냉진은 서울에 도착하여 뜻밖의 말을 들었다. ‘천자가 엄 승상의 간사함을 점차 깨닫고 그의 관작을 삭탈한 후 시골로 추방하였다. 가재(家財)는 적몰(籍沒)하여 관수(官需)로 편입하게 하였다.’는 소문이었다. 냉진은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하였다.

‘동청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 하지만 사람들은 엄 승상이 두려워 감히 고발하지 못했던 것이야. 이제 빙산이 녹았어. 동청이 어찌 오래 갈 리가 있겠는가? 계책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것이야.’

냉진은 즉시 대궐로 나아가 등문고(登聞鼓)를 두드렸다. 그러자 법관(法官)은 그를 잡아 놓고 까닭을 물었다. 냉진이 대답했다. “나는 본래 북방 사람입니다. 마침 계림 지방을 지나가다가 태수 동청이 자행하는 불법을 목격하고 속으로 몹시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에 감히 먼 지방의 백성들을 위해 천자께 아뢰려는 것입니다.”

냉진은 인하여 동청이 백성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겁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도적질을 일삼고, 편당을 모아 변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열두 가지 죄상을 조목조목 진술하였다. 법관은 그것을 천자에게 올렸다.

천자는 진노하여 금의위(錦衣衛)에 명하여 동청의 가족(家屬)을 옥에 가두게 하였다. 아울러 냉진이 열거한 열두 가지 죄상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냉진의 말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다.



마침내 천자는 동청을 저자에서 참수하고 그 가산을 적몰하게 하였다. 그의 가산은 황금이 삼만 냥이요, 백금이 오십 만 냥이었다. 주옥과 비단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처첩은 관비로 삼게 하였다.

냉진은 관가에 재물을 바치고 교씨를 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산동으로 가려 하였다.

교씨는 재앙을 겪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냉진을 따라갈 수 있었다. 또한 수중에 재물도 남아 있었다. 처음에 냉진이 가지고 가서 엄 승상에게 바치려 했던 금과 구슬은 도합 십만 냥이었다. 냉진은 그것을 모두 자신이 취했다.

두 사람은 몹시 즐거워하며 수레를 빌어 재물을 싣고 내려갔다. 동창(東昌)에 이르러 객점으로 들어가 술과 고기를 마음껏 샀다. 두 사람은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크게 취하여 정신을 잃고 툴아떨어졌다.

차부(車夫) 정대(鄭大)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본래 도적이었다. 정대는 그날 밤 자신의 도당과 함께 냉진의 재물 몇 수레를 모두 약탈한 후 도망을 갔다.

냉진과 교씨가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나 몸만 남아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이에 동창에 머물며 관가에 호소하여 정대의 종적을 찾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천자가 조회(朝會)에 나갔다. 그날 대화가 ‘수령이 백성을 학대하는 문제’에 미쳤다.

천자가 좌우에 물었다.

“전에 동청이 저지른 죄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강도와 다름이 없었소. 동청이 어떻게 벼슬을 얻었던 것이요?”

승상 서계(徐階)가 아뢰었다.

“엄승이 동청을 천거하여 진류 현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탁하여 계림 태수를 맡겼습니다.”

“짐이 이제야 생각하니 엄승은 문학(文學)과 이재(吏才)를 갖추었다는 구실로 동청을 천거했소. 그로써 보건대 엄승이 천거한 사람은 모두 소인이었고, 그에게 공척(政斥)을 당한 사람은 모두 군자였을 것이요.”

천자는 이부(吏部)에 명하여 엄승이 천거하였던 관리 백여 명을 도태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과거 엄승의 일로 죄를 입었던 사람들을 다시 탁용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간의대부(諫議大夫) 해서(海瑞)로 도어사(都御使)를 삼고 한림학사 유연수(劉延壽)로 이부시랑(吏部侍郎)을 삼았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조건 |**
- 1) (가)~(다)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작품의 내·외적 근거를 들어 각각 해석할 것.
 - 2) (가)~(다)의 문학사적 위상을 각각 설명할 것.
 - 3) (다)를 읽고 학습자가 고전문학 작품의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데 적합한 학습 과제 2가지를 들되, 그 과제의 의의를 논할 것.

예상답안

(가) 처용가의 사회적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적 근거는 ‘가로리 네히러라, 둘은 내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를 통해서 작품 내에서 다리 둘은 역신(역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이에 대한 외적 근거로 시대적으로 역병이 돌던 시기로 보기도 하고, 처용을 지방의 관리로 볼 경우 중앙 관리의 지방 관리에 대한 횡포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나) 선상탄의 사회적 문제는 작품 내의 내적 근거로 ‘해추 흥모(바다 외적의 흥계, 모략)을 통해 알 수 있고, 외적 근거로 임진왜란에서 왜의 침입으로 인한 고난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의 내적 부분은 교씨의 사통, 중국 왕(천자)의 무능을 제시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의 외적 부분은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장희빈의 국정 농단, 인현왕후의 폐비 사건을 통해 조선 왕의 무능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는 신라 향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구지가」, 「해가」로부터 이어지는 주술 시가의 맥을 이으며, 고려 가요 「처용가」, 「처용무」가 이어지고 있음을 통해 향가 작품 중 우리 문학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역병을 물리치는 것 등을 통해 우리 생활 문화, 무속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고려 가요 「처용가」와 향가 「처용가」에 똑같은 구절이 한글로 표기되어 전함으로 향찰 해독의 열쇠가 되었다. (나)는 조선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를 이어주는 과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내용 면에서 전기와는 다른 내용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전기 가사의 경우 주로 강호한정, 연주충군이었다면 ‘선상탄’의 경우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 전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다)는 가정소설 중 처첩간의 갈등을 다룬 쟁충형 가정소설의 효시이다. 또한 소설을 배척하던 조선시대에 사씨남정기를 통해 왕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 잘못을 고치게 했다는 점에서 소설 논의에서 소설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여한 작품이다.

‘사건 전개에 따른 결말을 파악한다’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여 (다)에 제시된 내용 전개(줄거리)를 통해 선인이 풀려나고 악인이 징벌을 받게 되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에서도 여전히 교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작품에 나타난 인간형을 파악한다’는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두 인물 유형 중 긍정적 인물의 행위는 충·효·열, 신의를 지키고, 부정적 인물은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의 특징을 통해 가치관의 측면에서 신의가 있는 행동이나 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인물(위정자)의 행위와 태도를 파악한다’는 과제를 통해 갈등의 원인이 된 왕(남편)의 무능을 깨닫고 해석하여 오늘날의 삶에서 위치(사회적 신분)에 맞는 처신과 행동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2011 - 2

작품에 나타난 정서를 파악하여 문학의 효용을 이해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수업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20점]

(가)

生死路隱	生死 길은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간다는 말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一等隱枝良出古	한 가지에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는 곳 모르온저.
阿也彌陀利良逢乎吾	아아, 彌陀利에서 만날 나
道修良待是古如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김완진 해독)

(나)

잘두하네 잘두하네	오하월신 덴호리야
단호리 단참 매어를 주구서	오하월신 덴호리야
삼천리 방방에 곳곳마다	오하월신 덴호리야
풍년(豊年)이 들었으니	오하월신 덴호리야
저건너 김풍헌 거동을 보소	오하월신 덴호리야
노적가리를 달아를 놓며	오하월신 덴호리야
춤만동실 추는구나	오하월신 덴호리야
올해두 풍년 내년에두 풍년	오하월신 덴호리야
년년년년 풍년이 오면	오하월신 덴호리야
우리농부가 신이 나서	오하월신 덴호리야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누립시다.	오하월신 덴호리야

- 「논매기 노래」-

(다)

숙향이 다섯 살 되던 때에 병란(兵亂)이 일어나 형주를 침노(侵擄)하니 백성들이 피란하였다. 김생도 가족을 데리고 강릉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도적을 만나 행장노복(行裝奴僕)을 다 잃어버리고 다만 부인과 함께 숙향을 업고 가다가 도적이 점점 가까이 오는지라 생이 능히 달아나지 못하고 부인더러 말하기를, “사세(事勢) 위급하니 숙향을 바위틈에 감추어 두고 갔다가 도적이 간 후에 데려감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씨가 울며 말하였다. “첩은 숙향과 함께 죽을 것이니 낭군은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생이 또 말하였다. “어찌 그대를 버리고 홀로 가리오? 차라리 셋이 함께 죽읍시다.”

장씨가 거듭 말하기를,

“장부가 어찌 아녀자를 위하여 죽음을 취하겠습니까? 빨리 가십시오.”

하였다. 생이 중내 응하지 아니하니 장씨가 어쩔 수 없이 숙향을 반야산 바위틈에 앉히고 꺾던 옥지 환 한 짝을 숙향의 옷 안 고름에 채우고 찬밥을 표주박에 담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 와서 데려갈 것이니 울지 말고 기다려라.”

하니 숙향이 발을 구르며 울며 말하기를,

“모친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며 따르거늘, 김생이 무수히 달랠 즈음에 돌아보니 도적이 멀지 아니 하거늘 숙향을 어쩔 수 없이 그 바위틈에 버리고 장씨를 이끌고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도적이 다다라 숙향을 보고 물었다.

“네 부모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앉아 울고 있느냐?”

숙향이 그 말을 다 일러 말하니 도적이 죽이려 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 늙은 도적이 말리며 말하기를, “부모를 잃고 우는 아이를 죽여 무엇 하겠는가? 내가 그 아이 상(相)을 보니 훗날 귀히 될 것이니 죽이지 말게.”

하고, 엮어다가 마을 근처에 놓고 갔다.

숙향이 어찌할 바를 몰라 길가의 가시덤불 밑에 앉아서 부모를 부르며 있노라니 행인들이 불쌍히 여겨 밥도 주고 또 물도 주며 위로하여 말하기를,

“너를 데리고 가고 싶으나 내 자식도 간수(看守)하기가 어려우니 불쌍은 하다마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였다.

이 때는 추구월(秋九月)이었다. 한풍(寒風)이 쌀쌀하여 밤이 되자 몸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노라니, 홀연 황새 한 쌍이 날아와 날개로 덮어 주므로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겼으나 그 따스한 기운에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날이 이미 밝았는지라 부모를 생각하여 부르짖으며 울었다. 문득 까치가 날아와 숙향의 무릎위에 앉아 울고 날아가거늘 숙향이 괴이하게 여겨 까치 가는 데로 따라가 여러 산을 넘어 한 곳에 다다르니 큰 마을이 있는지라 숙향이 울고 헤매었다. 이를 보고, 마을 사람이 물었다.

“너는 어떤 아이인데 울고 다니느냐?”

숙향이 말하였다.

숙향이 말하였다.

“부모님께서 ‘내일 와서 데려가마.’ 하더니 아직까지도 오지 아니하기에 속절없이 울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필시 난중에 잃은 아이구나.”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갔다. 숙향이 갈 바를 몰라 주저하는데, 홀연 잔나비가 삶은 고기를 물어다가 주기를 받아먹으니, 배고픈 것을 진정할 수 있었다.

-「숙향전」-

- 조건 |**
- 1) (가)~(다)에 나타난 정서를 작품 내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지도 내용으로 제시할 것.
 - 2) 정서에 주목하여 (가)~(다)의 효용을 설명하되, 당대 문학 향유 맥락과 관련지를 것.
 - 3) (다)를 제재로 고전 문학의 정서가 지닌 현대적 효용을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 2가지를 제시하고, 지도상의 유의점 2가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할 것.



예상답안

정서를 파악하여 문학의 효용의 효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학에 나타난 정서를 파악하고, 고전문학에 나타난 문학의 효용을 당대의 관점과 현대의 관점을 비교하여 제시해야 한다.

(가)는 혈육(누이)과 사별한 슬픔의 정서가 ‘생사길’,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다’는 구절을 통해 죽음에 대해 나타나고, ‘한 가지에서 나다’는 것을 통해 그 죽음이 혈육의 죽음임을 알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혈육을 잃은 슬픔을 불교적 세계관(아미타 신앙, 서방정토)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다림, 슬픔을 내세에서 만나고자 하는 기다림으로 극복하는 정서를 당대의 향유 맥락과 관련지으면 당대의 독자층 역시 당대의 불교적 기반 위에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추체험하면서 그러한 정서를 내면화한다. 이러한 효용은 현대적 효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에 나타나는 정서는 풍년을 맞은 기쁨과 흥겨움(신명)이다. 이는 ‘논매기를 한 후에 삼천리 방방곡곡 마다 풍년이 들었다’, ‘우리 농부가 신이 나서 태평성대를 누립시다’라는 노랫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논매기 노래의 당대적 효용은 논매기라는 고된 노동의 상황에서 부른 노래로 힘겨운 노동을 흥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된 노동이지만 풍년을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경우 제시된 지문을 바탕으로 볼 때 주인공은 부모와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부모 잃은 아이에 대한 배려와 동정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지문에서 전란의 상황에서 도적에게 쫓겨 부모와 이별하고 숙향이 우는 장면과 도적이 숙향을 살려주고 사람들이 측은지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 배려와 동정의 정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정서의 당대적 효용은 당대 민중들의 고난(전란, 가난, 이별)을 겪는 부분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지니게 되고 이를 통해 감정의 정화를 가져 온다. 또한 배려와 동정의 정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 삶의 자세와 인정,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다)를 제재로 고전 문학의 정서가 지닌 현대적 효용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가족 이산의 원인이 되는 당대 및 현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는 학습 과제를 통해 이산 가족이 발생한 원인과 그 슬픔에 대해 이해한다는 효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인물들이 숙향(약자)을 대하는 태도를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학습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파악하도록 한다. /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고전 문학의 당대적 효용과 현대적 효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어느 것을 긍정하고 부정하기보다 그 향유된 상황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다. 또 문학 작품의 의미나 효용에 대한 평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고전이 고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도록 한다.

2008 6월 모의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가)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였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광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나)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번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 고은, 「문의(文義)마을에 가서」-

(다) 부두를 뒤에 두고 서편으로 꺾들어서 전차길을 끼고 큰길을 암만 가야 좌우편에 이층집에 쪽 늘어
 썼을 뿐이요,

조선 사람의 집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얼마도 채 못 가서 전차길은 북으로 꺾들이게
 되고 맞은편에는 극장인지 활동사진인지 울그테불그테한 그림 조각이며 깃발이 보일 뿐이다.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 못하여 지나가는 지계꾼더러 조선 사람의 동리를 물어보았다. 지계꾼
 은 한참 망설이며 생각을 하더니 남쪽으로 뚫린 해변으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면서 그리 들어가면 몇 집
 있다. 한다. 나는 가리키는 대로 발길을 돌렸다. 비릿하기도 하고 고릿하기도 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해
 산물 창고가 드문드문 늘어진 샛골짜기를 빠져서 이리저리 휘터듬어 들어가니까, 바닷가로 빠지는 지저
 분하고 좁다란 골목이 나타났다. 함부로 세운 허술한 일본식 이층집이 좌우로 오륙 채씩 늘어섰는 것이
 조선 사람의 집 같지는 않으나 이문 저문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이집 저집 기웃기웃
 하며 빠져나가려니까, 어떤 이층에는 장고를 세워 놓은 것이 유리창으로 비치어 보인다. 그러나 문간에
 는 대개 여인숙이라는 패를 붙였다. 잠깐 보기에다 이런 향구에 흔히 있는 그러한 너저분한 영업을 하
 는 데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침결이 돼서 그런지 계집이라고는 씨알머리도 눈에 아니 뵈다.

쉴쉴한 거리를 이리저리 돌다가 그 여인숙이란 데를 한 집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불쑥 났으나,
 차시간이 무서워서 발길을 돌렸다. 다시 큰길로 빠져나와서 정거장으로 향하다가, 그래도 상밥 파는
 데라도 있으려니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닦치는 대로 들어가 보았다. 서울 음식같이 간도 맞지 않을 것
 이요 먹음직할 것도 없겠지마는, 무엇보다도 김치가 먹고 싶고 숟가락질이 하여 보고 싶어서 찾아 다니
 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람 집 같은 것은 그림자도 보이지를 않는다. 간혹 납작한 조선 가옥이 눈에
 띄기에 가까이 가서 보면 화방을 헐고 일본식 창틀을 박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좁다란 시가지마는 큰 길이고 좁은 길이고 거리에 나 다니는 사람의 수효를 보면 확실히
 조선 사람이 반수 이상인 것이다.

‘대체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디로 기어들어가누?’

하는 생각을 할제. 큰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그 불쌍한 흰 옷 입은 백성의 운명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 염상섭, 「만세전」-

4-1. (가)~(다)는 <보기>를 참고로, ‘길 모티프’ 중심의 통합 수업을 하기 위해 선정한 제재이다.
 아래 <조건>에 따라 (가)~(다)의 ‘길 모티프’를 각각 분석하여 ‘길’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
 다음, 모티프 중심 통합 수업의 의의를 ‘가치 있는 경험의 확장’이라는 문학 교육의 목적과 관
 련하여 논술하시오. [10점]

〈자 료〉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를 통해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무엇을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으로 볼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삶에 의미를 부여해 온 경험이라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제시되는 사물, 행위, 사건의 최소 단위를 모티프라고 부른다. 모티프는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사이면서 개별적인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론적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모티프에는 사랑, 입사, 변신, 꿈, 금기 위반, 낙원 상실, 희생양, 거울, 아버 찾기, 형제 갈등, 길, 귀향 등이 있다.

- 조건 |**
- 1) (다)의 경우,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
 - 2) (가)~(다)의 ‘길 모티프’를 분석할 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것.
 - 3) 답안은 20줄(±2줄)로 쓸 것.

→ **예 상 채 점 기 준**

- (1) 길의 상징적 의미(6점)
 - 2점 -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길의 의미가 맞게 드러났으면 : 2점
 - 2점 -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길의 의미가 맞게 드러났으면 : 2점
 - 2점 - (다)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길의 의미가 맞게 드러났으면 : 2점
- (2) 가치 있는 경험의 확장(3점)
 - 3점 - 가치 있는 체험의 내용이 위와 같이 2가지 맞게 드러났으면 : 3점
- (3) 분량(1점)
 - 1점 - 분량이 맞게 제시되었으면 : 1점(20줄±2줄 : 18-22줄)

예상답안

(가)의 경우 제 길 잘 가는 기러기와 달리 열십자 복판에 서서 방황하는 나와,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내가 갈 길은 없다는 내용에서 ‘길’은 ‘방황, 유랑, 방향상실’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당대 현실에서 보면 일제 식민지하에서 고향을 떠난 유이민들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나)의 경우, 1연의 7-9행, 2연의 2-6행에서, 길은 걸어가는 자들의 세계이므로 ‘삶의 길’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향하는 곳을 생각하면 ‘죽음의 길’을 의미한다. 여기서 길은 ‘삶’이자, ‘죽음’이며, 또한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의미한다.

(다)의 경우, 주인공은 화려하고 변화한 일본 사람들의 큰길(전차길)의 삶과, 허술하고 너저분한 조선 사람들의 골목길의 삶 및 집이 없는 현실을 통해 조선 민중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즉, (다) 작품은 주인공이 여행을 하는 길(여로형 구조)을 통해 암담한 조선의 현실을 드러내며, 이 작품에서 길은 ‘식민지 현실의 발견과 그것을 통한 자아의 각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모티프 중심의 통합 수업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의 확장이라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한다. 위의 예처럼 모티프에 관한 여러 작자들의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합하여 수업하면 첫째, 작가들이 모티프에 대해 형상화한 다양한 의미와 그 공통점 및 차이점, 그리고 문학사의 전개 속에서 모티프의 반복과 재창조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독자들이 추체험하기 쉬우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제재(모티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므로 사회 문제 및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인식하게 함으로서 가치 있는 경험의 확장이라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08 6월 모의 - 4

4-2. 김 교사는 수업에 앞서, 학생들에게 (가)~(다)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보기>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다음 차시 수업의 방향을 설계하려는 김 교사의 사고 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시된 해결 방안 가운데 ㉠과 ㉡을 중심으로 김 교사가 수행해야 할 교수·학습 내용을 아래 <조건>에 따라 제시하시오. [10점]

<보 기>

사고 과정	내용
과제물 분석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는 일제 치하에서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민족의 애환을 그리고 있으며, (나)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함. (다)는 일제의 강점으로 살 곳을 잃고 주변부의 삶으로 전락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봄.
문제 인식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에 쓰인 작품을 모두 저항 정신 혹은 비극적인 현실 인식과 연관지어 가르치다 보니, (나)처럼 시대를 달리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암울한 삶의 모습이 두드러진 작품이 나오면, 무조건 일제 강점기 작품으로 오독하는 경향을 보임. (가)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의 경우에도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해결 방안 모색	1)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작품을 수용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함.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버리고 작품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2) 다음 차시 교수·학습 내용 ㉠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반영론, 표현론, 구조론, 수용론이 있다는 것을 설명 : 각각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여, 하나의 작품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다)를 활용하여 반영론, 구조론, 수용론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가), (다)를 제재로 삼아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보도록 함.

- 조건 |** 1) 반영론, 표현론, 구조론, 수용론의 개념, 원리를 밝히고, 이를 (다)에 적용할 것
2) 답안은 15줄(±2줄)로 쓸 것.



→ **예 상 채 점 기 준**

(1) 개념 · 원리 (4점)

4점 - 개념 · 원리가 맞으면 : 4가지 각각 1점

(2) (다)에 적용한 내용(5점)

5점 - (다)에 적용한 내용이 맞으면 : 반영론, 효용론, 수용론 : 각각 1점
구조론 2가지 2점 / 1가지 : 1점

(3) 분량이 맞으면 (1점)(15줄 ± 2줄 : 13-17줄)

예 상 답 안

반영론은 작품이 대상으로 삼은 현실 세계 및 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비교, 현실 세계의 문제점 등을 중시하는데, (다)에서 1910년대 말 전차가 들어오는 중심부는 일제가 장악했고, 그로 인해 주변부로 내몰린 채 집도 없이 살아가는 조선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했음을 알게 한다.

표현론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창작 의도, 전기적 사실, 심리 상태 등을 중시하는데, (다)에서 주인공은 일제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작가가 현실에 대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충실한 관찰자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한다.

구조론은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것이 지닌 의미, 효과 등 작품 자체와 작품의 내적 의미를 중시하는데, (다)에서 1인칭 관찰자를 주인공으로 택해 현실을 잘 관찰했다는 점, 여로형 구조를 도입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주인공의 성격과 사건 전개가 일치한다는 점, ‘전차길’과 ‘골목길’의 대비를 통해 현실을 잘 드러낸 점, ‘흰옷 입은 백성’들은 상징적의미로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알게 한다.

수용론은 작품 수용에서 독자의 능동적 참여와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효과(기능)를 주는가를 중시하는데, (다)에서 주변부로 내몰린 조선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고 반성하면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교훈적 기능을 알게 한다.



2010 - 4

현대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소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30±3행) 【20점】

(가)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나)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댐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쑥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 바위에 댕돌같이 앉아서는,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 가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럭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어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 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경중경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중략)



봉구네 집에는 매운탕집을 하는 방울재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옛날 방울재 윗당산머리 봉구네 사랑방에 모여 놀던 버릇대로 밤만 되면 찾아왔다.

하나, 이날 밤 모임은 좀 달랐다. 이날 밤에는 칠복이 문제로 모인 것이었다.

“당장 쫓아 버려야 혀. 옛정도 좋지만 살고 봐야 할 께이 아닌감!”

올봄에, 혼기가 다 찬 두 딸과 증풍에 걸려 거동을 못 하는 병든 아내를 끌고 방울재로 다시 돌아온, 회갑 줄에 앉은 강촌영감이 아까부터 와락와락 성깔을 부려 가며 큰소리였다.

“차마 워치크롬 쫓아낼 거여.”

봉구였다. 옛날에 위아랫집에서 처마 맞대고 살아온 정 때문에, 강촌영감의 의견에 찬성을 하지 못했다.

“봉구 말도 일리가 있재잉. 고향에 찾아온 사람을 워치기 쫓아낼 거요잉.”

덕칠이도 칠복이와 가깝게 지내 왔던 터라, 쫓아내자는 데에는 어딘가 마음이 꺼립했다.

“제정신 갖고, 먹고 살겠다고 헌담사 워편 무지막지헌 놈이 고향 찾아온 사람을 쫓아내자고 혀겼어?”

“암, 그러고 마니!”

“옴짝달싹 못히게 묶어 놓으면 으쩌겠소?”

덕칠이었다. 그는 봉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중략)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스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쑤석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 문순태, 징소리

(다)

나는 ‘징소리’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불쌍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칠복이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난다. 나중에는 소원대로 고향에 돌아왔을까? 돌아왔다면 마을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칠복이가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 이웃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학생의 반응일지 중에서

- 조건 |**
- 1) 문학을 소통으로 보는 문학교육의 관점을 설명할 것.
 - 2) (가)와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분석하되, 문학 소통과 관련지어 의미를 해석할 것.
 - 3) ‘작품 해석의 결과를 자기 삶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로 수업한 후에 한 학생이 (다)의 글을 썼을 때, 이 학생에게 지도할 내용 2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힐 것.

예상답안

문학을 소통으로 보는 문학교육의 관점은 '작가-작품-독자' 층위의 소통 구조에서 이전의 작가·교사 중심을 벗어나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의 감상능력이 향상된다. 하나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감상에 대한 시각의 확장이 가능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한다. 또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작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한다.

(가)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개인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개인 내면의 갈등은 개인적 갈등이나 고뇌에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지향을 나타낸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일제하의 혼란한 현실에서 독립, 해방에 대한 의지, 염원을 나타낸다. (나)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드러난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칠복이와 마을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를 통해 농촌이 붕괴된 현실에서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 농촌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갈등도 나타나는데 산업화 도시화(개발)로 인한 농촌의 붕괴, 농촌의 파멸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갈등의 양상에서 하나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을 소통으로 보는 관점과 관련지을 수 있다.

(다)의 문제점으로 먼저 '작품 해석의 결과를 자기 삶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즉, 제시된 학습 목표인 자신의 삶에 적용한 부분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지도방안으로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감상하며, 해석의 결과를 자기 삶의 문제에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작품 해석의 결과가 근거도 없고 주관적 감상 위주이다. 주관적 느낌이고 인상이고 자신의 바람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지도 방안으로 작품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소설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해석 방법에 따라 소설의 구조 및 그 효과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2011 - 4

비평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수업을 계획할 때 필요한 내용을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20점】

(가)

안 초시의 소위 영결식(永訣式)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 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賻儀) 이 원을 서 참위가,
 “장례비가 넉넉하지 자네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알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킁킁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을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 참위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헴…….”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 참위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으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해보겠나? 인젠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 참위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멍청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후…….”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 참위와 박희완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생각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 이태준, 「복덕방」 -

(나)

단편 작가로서의 이태준은 벌써 일가(一家)를 이루었다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세평(世評)이다. 최근의 ‘복덕방’은 한 사람의 가괘*를 통하여 생(生)과 사(死)에 대한 어떤 암시를 보여 주고 있다. 만일에 안 초시가 몰락하여 가는 안 초시대로만 있었다면, 그는 가늘고 어두우나마 그의 생명의 길을 좀 더 넓어 갔을 것이다. 이태준의 ‘우암노인’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우암노인이 말년에 아들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사(死)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한 관찰과 해명이다.

* 집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



(다)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
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
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람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
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
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황동규, 「즐거운 편지」-

(라)

이 시가 사랑이 고통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다고 말하고 싶
다. 내 첫사랑의 기쁨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그렇다. 친구들은 사랑이 고통을 줄 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그때는 어느 정도 아프기도 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첫사랑의 추억과 기쁨을 소
중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시는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만을 표현하지 않아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이라는 구절을 보면
산업화 시대의 암울한 모습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산업화 시대의 고통을 표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조건 |

- (1)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기’의 문학교육적 의의 2가지를 서술할 것.
- (2) 아이러니(반어)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다)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 단, (가)와 (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반어) 유형을 밝히고, (가)에 대한 해석의 경우 (나)를 활용
하여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석한 내용도 포함할 것.
- (3) ‘(다)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비평문을 쓰시오.’라는 과제를 수행한 (라)의 문제점 2가지
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 내용을 서술할 것.

예상답안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기’는 고정되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석으로 작품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또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의 감상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작품을 감상할 대에도 주체적 태도로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와 (다)에는 언어적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가)에 나타나는 아이러니는 먼저 안 초시의 죽음에 대해 ‘호사’라고 하여 언어적 아이러니(말의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또한 제목과 관련지어 복덕방은 복과 덕이 있는 방인데, 실제로는 안 초시의 죽음이 나타나 극적 아이러니(상황적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안 초시는 안정화로 대표되는 신세대의 무관심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그 상황에서 (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행을 안고 그대로 살아갔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오히려 죽게 되는 모습을 통해 극적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생과 사에 대한 암시’를 엿볼 수 있다.

(다)에 나타나는 아이러니는 자신의 사랑을 ‘사소한 일, 그 사소함으로’이라고 표현한 언어적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일상적인 것은 늘 사소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제목인 ‘즐거운 편지’와 관련지를 때와 시의 담겨 있는 상황, 내용을 보면 기다림의 고난, 사랑의 실패가 나타나므로 극적 아이러니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생각만으로 기쁘고 즐겁다는 희생적 사랑, 인내하는 사랑의 면모가 나타난다.

(라)에 나타난 문제점은 먼저 (다)의 시의 주제는 ‘사랑의 간절함’, ‘기다림을 통한 이별의 극복’인데 (라)에서는 이 시가 사랑의 기쁨을 표현했다고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시에 나타난 반어적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여 (다)의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둘째, (라)에 나타난 ‘산업화 시대의 고통’은 자신의 관점도 아니며 또한 그렇게 파악한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파악한 것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해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론이나 표현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도한다.